

2026년 3월
안전보건교육 교재

[정리정돈과 재해예방·위험성평가]

오늘 교육 목표

- 정리정돈으로 사고 씨앗을 없애기
- 위험성평가로 위험을 '미리' 낮추기
- 현장에서 바로 실천하기

정리정돈, 왜 중요할까?

- 안전은 정리정돈에서 시작합니다.
- 어지러움은 넘어짐·끼임·충돌로 연결
- 작업 전 1분 정리가 사고를 줄입니다.



정리 vs 정돈

- 정리: 필요한 것/불필요한 것 구분
- 정돈: 필요한 것을 쓰기 좋게 배치
- 불필요 물품은 즉시 폐기/반출



정리정돈 불량으로 인한 사고

- 정리정돈 불량 → 불안정한 상태
- 불안정한 상태 → 불안정한 행동
- 결과: 전도·낙하·화재 등 재해 발생



정리정돈의 효과

- 찾는 시간↓, 이동 동선↓, 낭비↓
- 통로 확보로 전도·충돌 위험↓
- 설비 오염 감소로 고장·트러블↓



통로 확보 기준

- 통로는 80cm 이상 폭 유지
- 통로 위/옆 자재·공구 적치 금지
- 기름·물·케이블은 즉시 정리



바닥 관리 핵심

- 오일·물기·결빙은 즉시 제거
- 요철·단차·개구부는 표시/덮개
- 미끄러움 주의 표지로 경고



자재 적치 요령

- 종류·용도별로 저장장소를 지정
- 무거운 것 아래, 가벼운 것 위
- 전도·붕괴 우려 시 높이 제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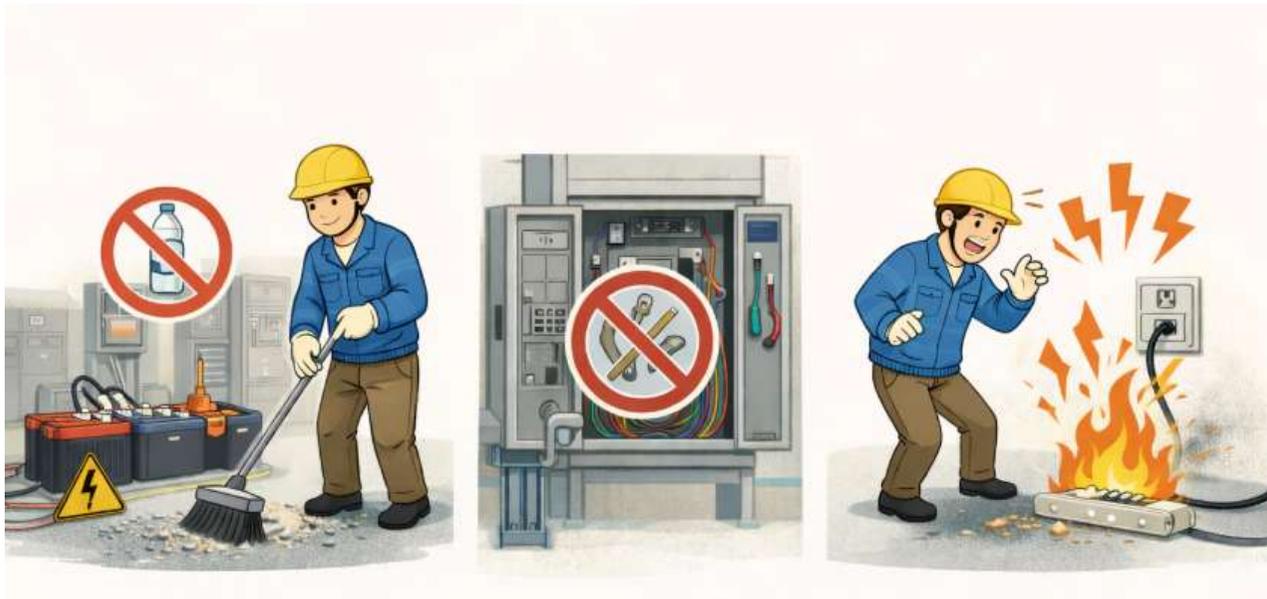
쓰레기·분진·찌꺼기 관리

- 바닥의 먼지·찌꺼기는 사고 유발
- 가연성 분진 퇴적은 화재 위험
- 청소로 위험개소를 빨리 찾습니다



전기설비 주변 정리

- 충전부 근처 물건 방치 금지
- 분전반·제어반 내부에 공구 보관 금지
- 문어발 콘센트는 과열·화재 위험



수공구 정리정돈

- 맞는 공구를 사용(대용품 금지)
- 파손·마모 공구는 폐기/수리
- 사용 후 공구함에 제자리 보관



고소작업 정리정돈

- 발판 위 자재·공구 방치 금지
- 공구 낙하방지(끈/홀더) 적용
- 작업 후 잔재·뒤통개 복원 확인



재해사례: 전도(바닥 장애물)

- 바닥 각재를 밟고 넘어져 머리 충격 사망
- 예방 : 통로 확보 + 바닥 정리
- 안전모 턱끈까지 올바르게 착용



재해사례: 미끄러짐(오일/결빙)

- 오일·결빙 구간에서 전도 사망 사례
- 예방: 즉시 제거 + 표지 설치
- 미끄럼방지 장화/안전화 착용



위험성평가란?

-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을 줄이는 과정
- 위험성: 발생 가능성 + 중대성의 정도
- 사업주가 주도하고 근로자가 참여합니다



위험성평가, 왜 해야 하나

-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의무 사항
- 감독·점검 시 실시 여부 필수 확인
- 형식 평가보다 '개선 실행'이 핵심



실시 시기(언제 하나요?)

- 최초: 사업장 성립/가동 후 1개월 내 착수
- 정기: 매년 결과 적정성 재검토
- 수시: 설비·작업 변경/재해 발생 시



역할과 책임

- 사업주: 방침·예산·조직 지원, 의지 표명
- 관리감독자: 위험요인 파악·대책 실행
- 근로자: 현장 위험 제보·대책 준수



절차 한눈에(5단계)

- ① 사전준비 ② 위험요인 파악
- ③ 위험성 결정 ④ 감소대책 실행
- ⑤ 공유·기록·재검토(지속 관리)



위험요인 파악 방법

- 현장 순회점검(사업주·관리자·근로자)
- 제안함/앱/포스트잇 등 상시 제보 창구
- MSDS·재해사례·측정결과를 함께 활용



위험성 결정 방법

- 체크리스트(적정 O/X)로 빠르게 확인
- 상·중·하 3단계로 직관적 판단
- 필요 시 빈도×강도 방식으로 산출



감소대책 우선순위

- 법 기준 준수 → 제거/대체를 우선 고려
- 방호장치·인터록 등 공학적 대책 적용
- 관리적 대책(작업허가·교육) + 보호구



결과 공유와 기록

- TBM(작업 전 안전점검회의)로 상시 공유
- 게시판.교육.SNS/앱으로 작업자 주지
- 평가내용.조치사항은 3년간 보존



오늘의 핵심 정리

- 정리정돈: 사고 원인을 눈앞에서 제거
- 위험성평가: 위험을 낮추는 실행 계획
- 우리 모두의 실천이 무재해를 만듭니다

